

불서읽기·사찰순례...정기모임으로 신심 다져

초심자부터 신심 깊은 불자들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넷 신행카페를 통해 불교 수행법을 배우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들은 온라인 모임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확대시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불자들을 결집시킨다. 정기적으로 모여 철야정진을 하는가 하면 전국을 사찰을 순례하며 진목을 다진다. 또한 불서를 함께 읽으며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도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불교 신행카페 네 곳을 소개한다.

이니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①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함께 전국 명찰을 찾고 법회를 여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 신행 모임의 전설 같은 곳이다.

②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특정 불교서적을 정해 매주 책읽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③카페 회원들은 49일 기도입재에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다라니 독송으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회원들이 쓴 일지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④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cafe.daum.net/bardo2)' 회원들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각자 수행일기를 올리고 운영자에게 수행 점검을 받는다.

사찰 순례부터 자체 수련까지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cafe.daum.net/altlovebuddha, 이하 불여사)'은 2001년 카페 개설 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회원 수 20989명을 자랑하는 모임이다.

이 동호회는 회원들이 함께 전국 명찰을 찾고 법회를 여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 신행 모임의 전설 같은 곳이다.

2011년 10주년을 맞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 불여사는 제57차 정기순례로 건봉사사를 다녀왔다.

불여사는 전국모임과 함께 서경, 부경, 대경, 충청, 호남 등 지역회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역장 중에는 사찰 출신도 있고 사찰 종무원 등 오랫동안 신행활동을 해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여행이 중심인 동호회라 오프라인 모임이 꾸준히 진행된다. 회원들은 1년에 4번 있는 정기모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도 하고, 각 지역장 주관 하에 매월 지역순례와 법회·자원봉사 모임을 가진다. 짝수 달에는 전국모임, 홀수 달에는 지역모임을 가지며 전국모임의 경우 1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수막을 걸고 연등행렬에 나가고 있다.

불여사는 회원 참가자 대부분이 초보불자들이기 때문에 불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불여사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 중 10명에 9명은 불교신자, 그중에 6명은 초심자다. 이들은 카페 초심자 방에서 불교예절, 기초교리 등을 공부하고 오프라인 모임인 산사체험을 통해 불교를 배워간다. 참가자 중에는 사찰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타종교인도 간혹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찰에 머물면서 108참회, 사경, 참선, 독경 등 자체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회원들의 오프라인 신행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여 지경불서 읽어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책은 읽고 싶는데 혼자서는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고,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이 카페모임에 참여해보면 어떻까.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http://cafe.naver.com/mahasariputta)회원들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간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특정 불교서적을 정해 매주 책읽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한다.

2004년 9월 개설돼 현재 1850명의 회원이 등록된 이 카페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개설 이듬해인 2005년 네이버의 '눈에 띄는 카페'로 선정되기도 했다.

카페는 크게 △공지사향을 전하는 '대중공사' △회원들 간 의견을 나누는 '지대방' △모임후기와 읽을 책 등을 소개하는 '붓다와떠나는책여행' △연령층에 맞는 불서와 법문집 등을 소개하는 '불서전용공간' △경전을 이야기하는 '경전연재' △교리 해설 등을 엮은 '아제아제바라아제' △사진 등의 자료를 담은 '함께나누는공간' 등으로 나뉘져 있다.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2004년 10월 <선방일기>로 시작해 2007년 11월까지 3년 간 읽은 책은 총 16권으로 연간 5.2권의 책을 읽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진행되는 방식은 이렇다. 20여 명이 책상에 둘러 앉아 순서에 맞춰 담당히 10분씩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이후 모임의 운영자인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미령 씨의 해석이 덧붙여진다. 10분 정도씩 돌아가며 읽는데 한 사람이 한 챕터를 읽은 후 난해한 부분 등을 해설한다. 일반 강좌에서 이뤄지는 토론은 배제한다. 토론은 일반불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감상문이나 서평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나눈다.

불서 읽기 모임은 처음에 민족사 윤창화 대표와 이미령 씨 등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에도 지부가 있다. 이 모임을 통해 고인직 교수의 <불교의 체계적 이해>, 이이화 소장의 <역사 속의 한국불교>, 철우스님의 <육심 버리는 법> 등 불교기초교리부터 시작해 예제이 등 다양한 책을 읽었다.

총 3년 과정으로 1년차 입문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으로 구성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심 불자 위주로 진행된다. 1권의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저자를

초청해 '저자와의 대화' 시간도 갖고 있다. 또한 이들 모임은 사찰이나 폐사지 탐방, 등산 등 테마여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라니독송...수행일기 보며 힘 얻어

대비주수행 카페 '덕양선원'

덕양선원(http://cafe.daum.net/zeol)은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으로 수행과 포교의 성과를 내는 모임이다.

카페 회원들은 49일 기도입재에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다라니 독송으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회원들이 쓴 일지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선정행 보살은 "5년 여만에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뒤로 내 몸과 마음은 변했고 차츰 삶의 방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이 줄어들었고, 요즘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덕양선원은 또한 대비주 수행 정진을 이끄는 원장 범상 스님의 법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대비주 수행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는다.

덕양선원은 마음공부와 더불어 보살행에도 적극 나서 안팎이 조화된 수행 및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았다. 회원들은 그동안 <전수경>과 다라니 독송 수행기를 엮은 책을 세 차례나 발행해 범보시하기도 했다.

명상, 잘되는지 의문 들 때는 이곳을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명상을 하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떤지 궁금 할 때가 많다.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cafe.daum.net/bardo2)'는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강선희 지음)>를 읽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명상 카페다.

이곳에서 회원들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각자 수행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명상을 해 가는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 진행한 '강선희 명상교실'의 강선희 보살이 카페 운영자를 맡고 있다. 그는 수행일기에 댓글을 달아 면밀하게 수행 점검을 해주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회원들은 명상을 통해 단 몇 개월 만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인생행로를 바꾼 경험을 하게 된다.

회원 사이닝 스타는 "능엄주 수행을 하면서 게으르지 말기를, 하루하루 순간의 일들을 미루지 말자고 발원했습니다. 바록 몸은 힘들었지만 수행을 마치고 집안 분위기가 새로워진 듯해 좋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회원들은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 타마하는 모습을 수행일기로 담아 <체험하며 따라가는 명상네비>라는 책을 발간했다.

Martial Arts & Temple Culture Festival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제10회 화랑의 후예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함월산 골굴사 산사에숙제

- 선무도 정기공연 :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 (골굴사 경내 - 월요일은 휴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재)선무도 대금강문 | 한국전통무예총연맹
Golgulsa, Headquarters of Sunmudo



한국전통무예와 음악의 조화를 통한 Healing

특별출연 정홍스님

일시 |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20th Oct, 2012)
오후 1시 - 5시 (1pm - 5pm)

장소 | 경주 골굴사 경내 (TEL 054-744-1689)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주)다본금속

www.golgulsa.com / www.sunmudo.net